

유학체험작문

고려대학교 사예진

즐거운 추억으로 가득했던 오차노미즈여자대학에서의 유학 생활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쓸쓸하지만, 그래도 행복했던 일들을 생각하며 웃는 얼굴로 저의 유학생활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이번 학기에 들었던 수업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마음건강과 젠더에서는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다양성과 정신건강 등에 대해 배웠습니다. 재미있고 의미있는 특강도 많이 있어, 역시 오차대는 이런 주제에 있어 최고의 학교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일본문학과 일본근대문학사 수업에서는, 문학을 통해 일본의 사회와 역사, 그리고 사람에의 이해를 한층 깊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사정연습5에서도 일본 문화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정의하는 힘을 몸에 익혔습니다. 또한, 일본어연습4에서는 오차대 학생들과 활발히 교류하면서 일본어와 외국어 학습에 대해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사정연습2에서는 유학생끼리 이야기하며 일본과 모두의 모국에 관한 여러가지를 알 수 있었고, 오차노미즈 소학교의 아이들과의 직접적인 교류도 있어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또, 고급 한자에서는 선생님의 친절한 지도 덕분에 일본어 능력을 높일 수 있었고, 유학생 로베르타 씨의 이탈리아어 수업에서도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 외에는 '미도리카이'라고 하는 합창단 동아리에 들어가서 합숙도 하고, 학교 축제에 참여하기도 하고, 대규모 연주회도 성공리에 마치면서 정말 즐겁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차대에서 제공하는 향도, 다도, 거문고 등의 교실에서 일본 문화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쿄뿐만 아니라 교토, 오사카, 후지카와구치코, 카루이자와, 나고야, 삿포로 등 일본의 여러 아름다운 장소에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했던 것도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동안 신세 진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모리야마 선생님, 하기와라 선생님, 이지원 선생님, 카토 선생님, 니시자카 선생님, 왕 선생님, 선생님들의 지도편달 덕분에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1년간 선생님들께 배운 많은 가르침을 잊지 않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의 유학생활을 지원해

주신 기숙사 관리자분들과 국제과 직원분들, 감사합니다. 또, 여러 도움을 준 튜터 신시아 나츠미씨, TANDEM의 베스트 파트너로서 함께 공부하고, 사이좋게 지내 준 아스미씨와 키누카씨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옆에서 가장 의지가 되어준 수민씨를 포함해 친구가 되어준 같은 유학생 여러분 덕분에 정말 행복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